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1. 2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러시아, 페이스북·트위터에 행정조치 착수
 - 1.21 러시아 정부는 개인정보 서버를 자국내 둘 것을 의무화하는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 페이스북·트위터에 대해 행정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힘
 - * 극단주의사상 전파와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차단 목적으로 SNS와 인터넷 등에 대한 통제 강화
- 英, 공항 불법드론 사태 계기로 '드론 규제' 강화
 - 런던 개트윅·히스로공항 불법드론 사태를 계기로 공항 주변 드론비행 제한을 확대하고 드론 소지자의 온라인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드론규제를 강화
 - * △ 공항 주변 5km이내 드론 비행금지(기존 1km), △ 250g 이상 드론 등록 의무화, △ 경찰의 드론 강제착륙 요구권 및 드론내 데이터 조사권 부여 등

미주

- 美 FBI, 백악관 테러모의 혐의 20대 급진주의자 체포
 - 1.16 AP통신은 미국 연방수사국(FBI)에서 대전차 로켓을 이용해 백악관 등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20대 남성 이슬람 급진주의자를 1년여 수사 끝에 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보도
 - * 대전차 로켓포·반자동 소총·폭발물이 실려 있는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체포
- 콜롬비아, 경찰학교 폭탄테러 배후로 민족해방군(ELN) 지목
 - 1.18 「보테로」 국방부장관은 보고타에서 발생한(1.17) 경찰학교 차량 폭탄테러(사망 21명, 부상 68명)는 10개월에 걸쳐 계획됐으며, 테러범 「로하스」(56세)는 범죄기록은 없으나 ELN의 폭파전문가라고 언급
 - * 민족해방군(ELN)은 콜롬비아 동북부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급진 가톨릭 신도를 중심으로 '64년 결성, 2,000여명의 조직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

아 · 태평양

○ 필리핀 민다나오, 무슬림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 실시

- 1.22 현지 언론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일부 지역에서 무슬림 자치 지역의 범위 확대와 자치권 강화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보도

* '14년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최대 반군 세력 모로이슬람해방전선(MILF)은 투표 가결을 통해 자치권을 확대하여 ISIS·알카에다 추종 세력으로 인한 혼란 증식을 목표

중 동

○ 아프간, 탈레반 차량폭탄 공격으로 126명 사망·27명 부상

- 로이터 통신은 1.21 아프간 동부 와르다크주 정부군 훈련소에서 탈레반에 의한 차량 자살폭탄 발생, 12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 당했다고 고위인사 말을 인용해 보도

* 반군 4명이 탈취한 군용차량을 이용하여 폭탄 자살테러 감행

○ ISIS, 시리아내 최후 소굴에서 붕괴 양상(연합뉴스)

- 1.22 AFP 통신은 수니파 무장조직 ISIS 잔당이 시리아내 마지막 소굴에서 전열이 무너져 1.21~22 간 시리아 동부 데이르에즈조르주에서 ISIS 조직원 470명 등 약 4,900명이 교전지역을 이탈했다고 보도

아 프 리 카

○ 美, 1.19 소말리아 공습으로 알샤바브 소속 52명 사살

- 美 아프리카사령부가 소말리아 남부 질립 인근에서 공습을 단행해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 대원 52명 사망, 美 국무부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알샤바브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표명

* 알샤바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데 대한 보복으로 지난 1.15 케냐 나이로비에서 최소 21명의 사상자를 낸 총격 및 폭탄테러 감행

나이지리아 카노에서 연쇄폭탄테러

- '12.1.20 나이지리아 북부의 최대 도시이자 무슬림 거주자들의 중심지인 카노에서 관공서와 경찰서 등 네 차례의 연쇄 폭탄테러로 185명이 사망
 - 첫 번째 폭탄은 카노의 경찰서 본부건물에서 폭발했고, 나머지 세 차례의 폭발도 경찰본부 인근에서 발생
- 테러 직후 보코하람 지도자 「아부바카 세카우」는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하며 “정부 대상으로 공격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” 이라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경고
 - 「아부바카 세카우」는 “우리는 오직 군인·경찰만 죽였다, 그런데 경찰은 자신들이 시민들을 죽여놓고 우리를 탓한다”며 정부를 비난
-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보코하람의 테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찰청장을 해임하는 한편, 강력한 대테러 대책을 강구하여 200여명의 테러 용의자를 검거

< 보코하람(Boko Haram) >

- (결성) ‘서구식 교육은 죄악’ 이라는 의미로 '02년 「무함마드 유수프」 설립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UN('14.5), 미국('13.11), 영국('13.7)
- (핵심인물) 아부바카 세카우(최고 지도자)
- (활동지역) 나이지리아(카노·바우치·보르노·플래토주 등 중·북부), 카메룬 북부 차드호 연안, 니제르 남동부 지역
- (활동수법) 정부시설, 기독교도 및 일반 마을을 급습하여 주민 학살
- (주요테러) '16.9월 「세카우」와 「알 바르나위」와의 권력투쟁으로 양측 지지자간 무력충돌이 있었으며, '16.12월 나이지리아 內 최후근거지 캠프제로가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어 조직이 와해되고 주변국으로 분산

